

玩月會盟宴 研究(三)

金 鎮 世*

1

筆者는 「冠岳語文研究」第二輯에 이 「玩月會盟宴」의 初頭部分인 卷 50까지의 梗概를 紹介한 바 있었고 同誌 第四輯에 卷 120까지의 梗概를 紹介한 바 있었다. 이번에 紹介하는 것은 이 作品의 끝部分인 卷 121에서 卷 180까지이다.

이미 紹介한 바와 같이 이 「玩月會盟宴」은 180卷 180冊으로 이것을 200字 原稿紙로 換算하면 約 30,000枚에 達하는 老대한 分量의 作品이기 때문에 그 梗概만을 紹介함에도 이렇듯 몇번씩이나 나누어 紹介할 수 밖에 없었다.

또 梗概를 紹介함에 있어서는 原典에 充實하고자 興味 爲主로 再構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기에 거북스럽고 理解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을 줄 아나 이 點은 미리 諒解가 있었으면 좋겠다.

2

소씨는 한부의 태부인 주씨와 짜고 이소저가 낳은 아들을 훔하려고 한다. 주씨는 侍兒 열섬을 불러 소씨 명대로 行하되 各별 주의토록 당부하였다.

이에 열섬은 근처에 사는 사람 중에서 자식을 많이 낳았지마는 家計가 어려워 제대로 기를 수 없는 사람의 新生兒를 사서 그 아이를 이소저

* 人文大 副教授(國文學 專攻)

가 낳은 아들과 바뀌었다. 열섬은 소씨의 간악함을 두려워서 그 명령에 따르면서도 한편 이소저가 낳은 아들을 구하여 정부에 積善을 하리라 생각하였다. 이소저의 아들을 궤에 넣어 그것을 江물에 띄우라는 소씨의 명을 이행하기를 주저하다가 그녀는 소처사와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이소저의 아들을 그에게 넘겨주고 집에 돌아가서는 명대로 그 궤를 강물에 띄웠노라 거짓보고를 하였다.

이에 앞서 소씨의 어머니 주부인은 딸의 간악함을 아는지라 至誠大孝한 인성에게 무슨 변이 있을까 하여 미리 心腹 비자를 정부에 잠입시켜 두었다. 새영은 소씨의 行計를 눈치채고 그 사실을 소부에 통보하였다. 소부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소처사가 친히 이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그는 노복들을 데리고 태운산 정부 가까이에 가서 숨어 있다가 열섬이 가지고 나오는 신생아를 거두어 돌아온 것이다.

그 신생아의 입에는 독약이 들어 있었으나 어린 탓으로 그것을 빨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주부인은 못된 딸을 낳은 죄책감으로 그 신생아를 잘 거두어 기르리라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단 소저의 짓으로 그 아이를 기르도록 하는 한편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였다.

영능도위 한공의 태부인 주씨는 양소저의 평생을 위하여 비자 홍영으로 하여금 남의 신생아를 훔쳐오도록 하고 그 아이를 바꾸어 궤에 넣고 홍영의 아비 계운으로 하여금 그것을 남강에 버리게 하였다. 계운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강물에 버렸으나 집에 돌아와 술이 깬 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남강에 갔더니 한 사람이 그녀를 전져 땅 위에 올려놓고 있기에 그녀가 죽은 뒤에 다시 와서 그 시체를 찾아가리라 마음 먹고 돌아왔다.

한편 도위는 이 사실을 의계 양계 두 사람에게 말하고 또 정부에 알렸다. 예부(목제)가 영능후 좌전에 갔을 때 도위는 그를 반가이 맞았으나 그 다음의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보는 그를 위로하고 다시 丙

堂에 들어가 公主를 위로하였다. 公主는 孫子 잃음을 몹시 가슴 아파하였다.

저녁 때가 되매 그는 죽을 준비하여 군주가 먹게 하고 그녀의 병 구완을 하였다. 상서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은 것에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그것을 억제하고 군주의 病勢가 早速히 回復되도록 당부하였다.

정상서가 집에 돌아와 군주의 病勢를 말하자 태부인은 처사를 명하여 한부에 나아가도록 했다. 이때 한부에서는 주부인이 손녀 양소저와 더불어 상서(인성)와 군주가 밤새도록 情답게 지냄을 보고 이것을 시새움하여 양소저를 인성의 방에 넣으려 하였다. 이때 도위가 그것이 불가함을 말하자 주부인은 도위가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다. 이것을 말리던 도위는 손이 상하기까지 하였다.

정상서가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고 바로 일어나 이부로 가려 하자 그곳에서는 바둑을 내어놓고 시간을 끌 뿐 아니라 술을 내었다. 상서는 처음에 그것을 먹지 않으려 하였으나 하는 수 없어 마시게 되었고 마침내 大醉하기에 이르렀다.

도위는 딸인 군주의 病勢가 甚하여 다른 곳에 옮김을 말하고 이어 상서가 不便할까봐 대신 양소저를 그의 私室에 보냄을 말하고 이러한 일은 벌써 정치사에게 請하여 許諾을 받았음을 말하였다. 이때 상서는 별다른 異議를 말하지 않았다. 상서가 돌아가면서 군주를 운산에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군주가 운산으로 돌아오자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병을 걱정하였고 처사는 친히 약을 마련하여 조리토록 하였다. 이소저가 군주께 문병을 갔다. 군주와 서로 잃은 아들 이야기 끝에 군주의 종형인 소직사 부인인 단소저가 강가에서 주운 신생아를 기르고 있다 함을 전해 듣고 내심 기뻐했으나 시어머니 소씨의 허물을 생각하고 사색지 않았다.

양소저의 길일이 다다랐다. 주태부인은 혼수를 호화롭게 차려서 보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호화로움을 즐겨하지 않았다.

新婚 初夜에 상서는 新房에 들어가 밤이 오래도록 책을 읽다가 새벽이 되어 그대로 나오고 말았다. 양소저는 상서의 그 대접이 사뭇 못마땅하여 매우 不滿스러움을 말하였으나 소씨는 그녀를 경계하고 타이르며 後日을 기다리라 하였다.

상서는 이부총재 홍문관 체찰사 겸 대동백이 되었다. 그는 자기 몸이 영화로웠으나 자기의 三妻中 一妻인 양소저와 母夫人 소씨의 奸惡함을 感化하지 못하고 있어 한 번 웃는 법이 없으니 주위에서는 모두들 그것을 근심하며 지냈다.

이부총재가 天子께서 下賜하는 술을 마시고 취하여 돌아왔다. 그는 곧 母夫人 소씨에게 가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 자리에서 父親인 청계가 인옹을 몹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소씨는 펍 기뻐하며 마음 속에 품었던 화를 약간 풀었다. 이때 소씨는 또 양소저의 행실이 좀 빛나기더라도 그녀를 이소저나 한소저처럼 아껴 주도록 당부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는 그날 밤 혼정 후 양소저에게 가기로 하였다.

이소저가 군주에게서 들은 바, 소부에서 신생아를 숨기고 기르고 있음을 총재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 아기를 주워서 데리고 온 日時가 그들이 아기를 잃은 때와 같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夫婦는 마음 속으로 펍 기뻐하였으나 또 한편 母親인 소씨가 凶計를 써서 殺人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그녀의 失德을 몹시 걱정하였다.

양소저가 정부에 와서 相當한 時日이 지나도록 남편인 총재의 무대접을 받게 되자 그녀는 이 사실을 소씨에게 말하는 한편 몹시 역경을 내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소씨는 그녀에게 좀더 참고 견디라고 타일렀으나 양소저는 갈수록 더 일어나는 淫心을 참을 수 없어 그만 병이 나서 눕고 말았다.

총재가 인옹을 데리고 조부에 갔다가 후한 대접을 받았다. 조부에서는 모두들 인옹이 뛰어난을 일컬고 後日 鴻信이 있기를 기약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소씨는 자기의 아들인 인옹이 총재에게 조금도 나리

지 앓음을 기뻐하였고 그럴수록 총재를 없애고저 하는 흥심이 솟아올랐다. 이에 소씨는 총재가 양소저를 박대한다는 것을 빌미로 총재를 핍박하였다. 그녀는 “네가 죽든지 나를 죽이든지 어느 한 쪽을 擇하라”고 욕박질렀다. 毒약을 앞에 놓고 이렇듯 악을 쓰는 것을 본 인웅은 자기가 뉘 대신에 그 독약을 먹겠노라 하였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은 소씨는 마음대로 하라 하고 돌아섰다. 이때 인웅은 그만 그 독약을 마시고 말았다. 이에 집안이 한바탕 난리를 치렀으나 인웅은 無事하였다. 총재는 그날부터 양소저의 비홍이 없어질 때까지 매화당에 가기를 확약하였고 총재와 同寢을 하게 된 양소저는 병석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인웅의 飲毒事件으로 處士 以下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몽창의 落傷事件으로 온 집안이 또 한 번 긴장을 하게 되었다. 몽창이 양소저의 處所 앞을 지날 때 양소저가 그를 붙렸다. 그녀는 몽창에게 다과를 주고 자기에게 자주 오지 앓음을 책하며 걸사랑을 하다가 그 아이를 欄頭에 데리고 나와 雪景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아이를 난간 아래로 밀쳐 버린 것이다.

그녀는 또 총재가 자주 軍주의 處所에 出入을 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자주 오지 않게 되자 돌발적으로 독기가 치밀어올라 軍주의 방에 뛰어 들어가 軍주를 亂打하기에 이르렀다. 총재는 양소저의 죄를 크게 다스리려 하다가 영능후의 안전과 모부인 소씨의 체면을 보아 조금 늦추었다. 그러나 그녀는 소씨의 命을 받아 한 짓인데 왜 자기를 죄주려 하느냐고 악을 썼다. 총재는 그녀를 벽실에 가두려 하였으나 소씨가 그녀를 데리고 있겠다고 함에 하는 수 없이 그 명을 따르기로 하였다.

영능후가 딸의 병세를 듣고 정부에 왔다. 그는 그 동안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 그러한 사고가 있었음을 정중히 사죄하였다. 그리고 그는 딸을 데리고 가서 치료토록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총재는 자기가 돌봄이 더 좋다고 하면서 조석으로 정성껏 병구완을 하였다. 그것을 본 영능후는 한 시름 놓게 되었다.

해가 바뀌었다. 소씨는 총재에게 國家의 罪人도 特赦를 받게 되는데 家內에서야 어찌 그렇지 못할까보나 하며 양소저의 罪를 풀어 줄 것을 請하였다. 이에 총재는 소씨의 뜻을 따랐다. 그러자 소씨는 양소저와 한타령이 되어서 다시 凶計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양소저는 소씨에게 가서 이소저와 그 일당이 한소저의 아들은 양소저가, 이소저의 아들은 소씨가 죽었으니 원수를 갚지 않으면 자기들이 모두 죽게 되니 원수를 갚자하고 모의를 하고 있다고 참소하였다. 이에 소씨는 이소저와 한소저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녀들을 죽이고 자기도 그 칼에 죽겠노라 하며 이소저를 찌르려 하는 참에 인웅이 달려들어 그 칼을 빼앗았다.

인웅이 모친 앞에 엎드려 바른 말로 諫하니 모친인 소씨가 도리어 죽으려 한다. 그러자 인웅은 자기가 죽겠다고 하였다. 이럴 무렵에 총재가 들어와 동생인 인웅을 책하고 그 죄를 자기에 돌려달라고 한다. 소씨는 총재를 고대 갈아 마시고 싶으나 이, 한 두 머느리를 제하에 끌리고 있는 터이라 참는다.

인웅은 자기 母親의 속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당하면 아픈 마음을 참기 어려웠고 한탄해 마지 않았다. 군주의 방을 둘러 그녀의 상한 곳을 다스리고 나온 총재는 인웅이 몸이 불편하여 신성에 참여치 못함을 아뢰니 太夫人이 걱정한다.

인웅이 손을 상하게 된 내막을 알게 된 집안 식구들은 몹시 걱정을 하는 한편 소씨의 행사를 해괴해 하였다. 식구들은 또 인웅의 冠禮가 며칠 남지 않았는지라 그때까지 그 손이 낫게 될는지를 걱정하는 한편 교지의 정상서를 생각하며 근심의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소씨는 그녀대로 마음이 풀리지 않아 발광을 그치지 않는다. 인성은 모부인의 마음을 편안케 하려는 孝心을 發하여 소부인 앞에 가서 그러한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며 엎드려 매를 請한다. 이러한 광경을 본 예부는 정부 집안의 앞날과 교지의 伯父를 생각하고 한탄함을 그치지 못한다.

인옹의 冠禮日이 되었다. 여러 곳에서 그 行禮함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옹의 出衆함을 감탄하였다. 인옹은 先親이 자기의 冠禮日에까지 生存하지 못함을 슬퍼하였고 또 한편 청계가 교지에 있어 參席하지 못함을 아쉬워하였다.

이때 皇帝는 太平科를 設場하여 人材를 널리 求하려 했다. 인옹이 여러 從弟들과 함께 出場하여 壯元으로 及第하였다. 집안에서는 큰 잔치를 벌여 壯元을 祝福해 주었다. 이날 化부인은 아들의 快事를 기뻐한 나머지 그만 졸도하고 말았다. 서태부인은 그 光景을 보고 걱정은커녕 그럴 만하다고 오히려 기뻐하였다.

壯元이 三日遊街를 마치고 上前에 肅拜하자 上은 그에게 동국직학사를 除授하였다. 이때 상관백 兄弟가 壯元을 찾아왔다. 이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나 지난날 科場에서 사귄 사이였다. 인옹이 試紙를 다 쓰고 그 주변을 들고 있을 때 이들이 壯元에게 몇가지 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 壯元이 그것을 對答해 준 일이 있었는데 千萬 뜻밖에도 이 두 사람이 모두 合榜하게 되었다. 그들은 壯元에게 卞生의 恩人이라면서 그 感謝의 뜻을 表하려 온 것이었다.

상관백은 어려서 母親을 잃고 祖母 밑에서 成長하였는데 그 祖母마저 죽게 되어 繼母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 繼母는 자기의 親生兒에게는 호강을 시키며 길렀으나 상관백에게는 일만 시키고 제대로 글을 읽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兄弟는 友愛가 지극한 善良한 兄弟였다. 壯元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함을 생각하고 서글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소씨는 아들이 壯元이 되었음을 몹시 기뻐하였으나 그럴수록 그녀는 정문의 代統을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倍加하여 인성과 그의 부인을 살려 두게 됨을 안타까워 하였다.

인옹은 上의 允許를 얻어 교지의 父親을 뵈러 떠나게 되었다. 이때 인옹은 舅인 인성과 함께 가기로 했다. 中途에서 소양공을 뵈고 떠났는데

인용 兄弟는 이들과의 만남에서 母親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없는 동안 兄嫂와 몽창의 신상에 不意之事가 생기지 않을까 근심을 하였다.

진누사인 정태사가 巡行하는 도중 홍윤이 케 하나를 얻어왔다. 그 속에는 어린 아이가 들어있었다. 정태사는 곧 그 아이가 비상함을 알았다. 그는 그 옷고름 속에 무엇이 있음을 發見하였다. “정오조 몽현은 옥선 군주 한시의 쇼성애라”고 써어 있었다. 이것을 본 정태사는 大驚하여 그 아이를 잘 휴양토록 했다. 정태사를 따르던 홍윤과 최언선은 그 곡절을 눈치 채었으나 집안 편지에는 言及지 않았다.

中使인 인성과 아우 인용은 신고 끝에 그 父親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그 동안의 회포를 나누며 父子 叔姪間의 情을 나누었다. 한편 양순(양씨 부친)은 그 딸이 行惡하고 있음을 알고 곧 京師로 정처사에게 글을 보내어 그 딸을 데려다가 그녀를 毒殺하려 하였다. 이때 참정이 친히 글을 보내어 그녀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양공은 딸이 너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아는 고로 그 請을 듣지 않고 딸에게 毒을 마시게 하였다. 바로 그때 영능후 곤계가 그곳에 와서 양소저를 구하였다. 이에 양소저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엄구의 자애와 총재의 仁德을 깨닫고 다음을 고쳐 먹기로 했다.

양공은 딸을 데리고 양주도 돌아가서 그녀를 벽실에 가두고 이후 改過하면 다시 정부에 보낼 것이고 改過치 못하면 그곳에서 아주 죽게 하리라 하였다.

오래도록 나라가 太平하더니 西戎의 야율개가 中原에 대해 反旗를 들었다. 이때 丞相인 이빈은 정참정을 大元帥로 하고 정염을 副元帥, 정인성은 호위대장 그리고 정인웅을 中軍體察使로 任命하여 야율개를 치자고 上奏하였다. 이에 노은 이 뜻을 받아 그들을 出征케 하였다. 이 消息을 들은 야율개는 “정잠이 있는 限 中原을 칠 수 없다”는 자기 아비

지의 말을 생각하고 의기 소침하였으나 당초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야율개는 크게 攻勢를 취하였으나 大元帥의 神術에 놀려 戰勢가 不利하기만 했다. 야율개는 하는 수 없어 그만 항복하고 말았다. 정원수는 그에게 간곡히 타이르고 그를 西戎王을 封하여 社稷을 지키도록 했다.

경선군 탐탈화가 발해국을 쳐부수고 그 餘勢를 몰아 明陣에 싸움을 들우어왔다. 이에 大元帥는 다시 兵力을 그곳으로 돌려 마침내 그들을 降伏시키고 말았다. 大元帥는 이치로 타일러 그들을 按撫하였다. 戰捷이 京師에 들리자 上이 率軍하여 돌아오라는 教旨를 내렸다. 大元帥가 回軍하였을 때 上은 그를 반기며 그의 勞苦를 치하하였으나 大元帥의 老母가 기다릴 것을 생각하고 그를 빨리 집으로 돌려 보내고 서로의 회포는 다른 날 풀기로 했다.

정處士의 부인인 화씨가 病이 되어 좀처럼 낫지 않았다. 이에 직사를 비롯하여 이, 장 두 며느리의 근심이 대단하였다. 이에 處士는 집금오에게 부탁하여 그 病勢를 看脈토록 하였더니 그 病이 비록 危急하기는 하나 回春하리라 한다.

화부인의 病은 오래 繼續되었다. 이에 장소저가 雪中에서 그 몸으로 대신하여 정성을 드리매 마침내 그 병이 낫기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孝誠을 칭찬하였다.

이때 大元帥가 돌아온다는 消息이 왔다. 온 집안이 모두들 기뻐하였으나 오직 소씨만은 男便인 大元帥가 돌아옴을 그리 반가와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는 그 며느리를 百方으로 들볶고 그녀를 없애지 못함을 恨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大元帥가 돌아온다는 消息을 들은 태부인은 친히 멀리까지 나가 五年만에 만나는 아들을 맞았다. 그녀는 그를 만나자 先君과 죽은 大元帥의 妻인 양씨를 생각하며 슬퍼하였다. 그러나 大元帥는 老母를 위로하는 한편 그 딸들에게 슬픈 빛을 보이며 할머니를 언짢게 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大元帥는 몽창을 보고 限없이 기뻐하였고 며느리인 이소저의

손을 잡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大元帥가 上前에 알현하였다. 이때 上은 그를 王號로써 칭공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不當함을 말하며 限死코 그 王號를 사양하였다. 그래서 그는 首闕老의 벼슬만을 받기에 그쳤다. 그 자리에서 上은 太子에게 師傅의 대접을 두터히 하라고 하였다.

집에 돌아온 大元帥는 집안 여러 사람을 모으고 그간 소씨의 非行을 나무랐다. 그 자리에 있던 여동생들과 두 딸들이 그녀를 변호하며 그렇지 않음을 말하였으나 그는 他日 그 증거를 가지고 소씨를 다스리리라 하였다.

妻家인 소부에 들렀던 大元帥는 그곳에서 소공과 주태부인이 간직하고 있던 소씨의 行惡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 그들은 딸이 行惡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죽이지 못하였음을 사과하며 大元帥에게 딸을 죽이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大元帥는 첫째 어머니가 그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오 둘째는 인성과 인웅 등 아이들이 그 일에 同調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일을 決行치 못할 것을 말하며 소씨로 하여금 改過遷善토록 努力하겠다고 하였다.

소공은 또 이소저 소생인 아들(몽득)을 데리고 나와 大元帥에게 보이며 이분이 너의 할아버지이니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이어 소공은 그 아이가 자기 집에서 자란 내력을 들려 주었다.

집에 돌아본 大元帥는 母親과 상의하여 잃었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모두 生存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태부인은 주태부인의 그 心情을 익히 헤아리고 大元帥에게 집에 있는 동안 자주 그 老母를 찾아 그분을 위로하라고 타일렀다.

大元帥는 모든 며느리들을 귀경케 하는 한편 자식들도 모두 데리고 가도록 했다. 그리고 母親과 상의하여 소씨를 다스리자고 했다. 그러나 태부인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인성과 인웅 등에게 두번이나 모친과 死別하는 가슴 아픔을 줄 것이기에 그녀를 간곡히 타일러 차후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소씨를 소부에 보내기로 했다. 이때 인성과 인웅은 母親인 소씨가 본디 奸惡한 것이 아니라 그 侍女들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모친의 죄를 변호하였다. 소부에 도착한 소씨는 거의 시신이 되어 있었다. 소공과 그곳 식구들은 그녀가 죽기를 바라던 터이었으나 막상 딸이 죽기에 이르고 보니 父子之情과 同氣之情으로 차마 그 경상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빨리 그녀를 구호하여 蘇生케 한 뒤 벽실에 두기로 하였다.

소씨가 기절하였다는 消息을 들은 大元帥(정상국)는 그 아우와 함께 소부에 가서 침으로 그 맥을 통케 한 후 그녀가 있을 벽실을 손질하고 돌아왔다. 이 무렵 두 딸이 몸이 편치 못하다는 기별을 듣고 그는 조부에 가서 진맥을 하고 그녀가 產氣가 있음을 안 다음 정부에 들렀다가 돌아왔다.

소부의 주태부인이 병이 된 뒤로 오래도록 가감이 없으며 정상국이 그곳에 가서 의치하자 旬餘에 그 병이 낫게 되었다. 그 뒤로 상서 곧재는 자주 소부에 가서 간청하매 소씨가 음식을 먹기에 이르렀다.

예부인 인광이 兄인 인성(진유사)이 있는 곳에 갔다가 헤어짐에 서로 손을 놓지 못하였다. 이무렵 인성과 인웅은 그들의 꿈자리가 사나워 혹 그들의 父母 신상에 무슨 변고나 없는가 하고 근심하며 지냈다.

인광이 돌아온 후로 자기의 아내를 멀리하고 있음을 안 상국이 處士를 불러 나무랐다. 이때 處士는 인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상국은 父命을 듣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야단을 치고 즉시 인광을 불러 엄하게 경계하였다. 인광도 이에 다다라는 더 거역하지 못하였다.

그날 밤 인광은 오랫동안 그 아내인 장소저의 침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장소저에게 지금까지 불미스러웠던 모든 것을 없애기로 약속하며 부드럽게 그녀를 대하였다. 이들은 드디어 화합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장공은 몹시 기뻐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상국을 찾아왔다. 서로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성명소저의 길기가 다다랐다. 成婚 후 공씨 집에서는 소저의 뛰어난 을 보고 모두들 기뻐하였다. 장공 부부도 자식이 그 아내를 사랑함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數日을 그를 신방에 보냈다. 인평의 아내인 장소저가 三日이 지났으니 처가에 가 봄이 禮라 했다. 이에 장상서가 신랑을 데리고 정부에 갔다. 이때 정부인도 同行했다. 성명소저의 결혼 후 兩家가 서로 인사로 往來하매 의제공도 저르기 마음이 풀어지고 장군(사위)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때 東越王의 동생인 경선군 탐탈화가 그兄을 죽이고 發兵하여 中原을 犯코자 함을 듣고 朝廷에서는 근심하였다. 그러나 탈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로 그를 죽였다 하고 또 인성도 表를 올려 越兵의 염려가 없음을 이치니 上은 인성을 京師로 부르기로 하였다.

東越에서 王弟인 경선이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고 있었다. 그는 計劃을 세워 먼저 兄王의 宮에 들어가 守門將을 죽이고 突入하여 처부숨에 兄王은 忠臣에게 업혀서 도망을 하였으나 갈 곳이 다 땅치 않아 진유의 있는 곳에 이르렀다. 경선이 兄王을 다져 죽이려고 찾다가 兄王이 진유에게 依託하고 있음을 알고 單身으로 夜暗을 타 그곳에 가서 兄王과 진유를 죽이고 父王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선은 그곳에서 진유에게 發覺이 되고 드디어 그곳의 장수에게 生捕가 되고 말았다. 이에 兄이 다시 王으로 나아가고 경선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로 東越은 平定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이에 진유(인성)와 체찰(인웅)은 그들의 任務를 다하게 되었고 마침내 上京하게 되었다. 이들은 上京하는 中途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 六·七個月 헤어졌던 회포를 풀게 되었다. 이때에도 이들은 주로 모부인 소씨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

先是에 소씨가 누실에 든 후로 일체 곡기를 끊고 죽음만을 기다리니

소상서 곤계는 그 누이를 여러 가지로 개유하여 달래는 한편 자전이 그녀 때문에 환후가 일어남을 말하였으나 소씨는 죽기를 말할 뿐 그 오빠들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녀는 인성이 그토록 보기 싫고 죽이고 싶은 마음 뿐이라서 그를 죽이지 못하고는 세상에 살지 않겠다고 고집할 뿐이다. 이때 소노공이 들어와 아비를 속이며까지 그 누이를 위한다 하고 상서 곤계에게 笞杖을 치려 하였다. 마침 그때 정상국이 그곳에 이르러 그 태장이 과도함을 말하고 그 죄가 자기에게 있으니 그들을 용서하라고 부탁을 하였다.

정상국이 소상서를 용서시키고 가지고 온 바 약으로 소씨에게 服用케 하였던 바 그후 그녀는 若干 病이 낫게 되었다. 이때 인성과 인웅이 그곳에 이르렀다. 인웅을 본 소씨는 처음에 펍 기뻐하였으나 뒤이어 상서와 인성이 들어옴을 보고는 눈을 감을 뿐 아니라 입에 넣었던 藥마저 먹지 않았다. 이에 그들 三人이 모두 입을 모아 소씨의 마음 돌림을 당부하였으나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얼마 후 인성이 父親인 정상국의 救命을 가지고 소씨에게 가니 소부인은 하는 수 없이 정부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좀처럼 病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모두들 그녀의 病勢가 낫지 않음을 걱정하며 지냈다. 이에 태부인은 정상국에게 소씨 病席을 보살피도록 명하였다. 정상국은 母親의 命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자주 그녀를 보살폈다. 소씨는 마음 속으로는 펍 불만스러웠으나 참고 견디어야만 했다.

소노공이 정부에 왔다. 이때 그는 玩月臺에 올라 月色을 구경하고 그 다음날은 태운산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 자리에는 이, 조, 등 상국이 모두 함께 하였고 十年前 태사를 모시고 그곳에 올랐던 記憶을 새롭게 되새기며 十年歲月的 變化에 감개무량해 했다.

집을 나간 인증은 手中的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그는 순순히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생각 끝에 그는 모친인 소씨의 칩

전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보패를 훔쳐 가지고 나오며 몇 자 사연을 적어두었다.

그는 먼저 兄嫂인 이소저와 조카인 몽창을 죽이고 다음에 兄인 인성을 처치하리라 생각하며 지냈다. 먼저 그는 이상국 집에 가서 그 근처에 불을 지르고 일을 꾀하려 하였으나 그만 잠히고 말았다. 이때 마침 몽창이 外家인 그곳에 어머니 심부름을 왔다가 그 光景을 보고 三寸인 人證임을 말하지 않고 덮어놓고 그를 놓아주려 했다. 이사인과 장상서는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이에 몽창은 人證을 붙들고 있는 장상서의 허리띠를 휘두르고 그 틈을 타서 人證이 몸을 날려 도망케 하였다.

그곳을 도망한 人證이 이번에는 주가에 가서 放火를 하려다가 어느 白髮老人에게 잡히게 되었다. 이때 최언선의 아들이 나타나 人證의 身分을 말하고 풀어줄을 간청하여 허락을 얻었다. 최언선의 아들인 창운은 그에게 집에 돌아가기를 간청하였으나 人證은 그의 말을 듣는 체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창운의 여동생을 친압하려다가 그녀가 자문하매 그곳을 피해 떠나고 말았다.

달아나던 中途에서 人證은 兄인 인성이 그를 찾으라고 보낸 奴僕를 만나 兄의 글을 받게 되었다. 그 글 속에는 兄의 간절한 사연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兄의 당부를 뿌리치고 天下를 周遊함이 좋다 하고 西湖 쪽으로 떠나고 말았다.

이후 人證은 酒店을 돌면서 娼女들과 사귀며 무절제한 生活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女人들의 渦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녀들의 투기로 인하여 地陷에 갇히는 身勢가 되고 말았다. 여러 날을 이 지함에서 지내면서 그곳에 버려져 있는 屍身을 보고 그는 마음에 變化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人證을 찾으라는 命을 받고 그를 찾아 다니던 최언선과 운기는 人證이 지함에 갇혀 있음을 듣게 되었다. 이들은 그곳 무후의 양해를 얻고 人證을 救한 다음 父兄의 간절한 당부를 傳하였다. 그 말을 들은 人證

은 드디어 집에 돌아가기를 決心하였다.

집에 돌아온 인중은 그 죄값으로 笞杖을 맞아야만 했다. 그 笞杖이 五十에 미치매 총재와 한림 등이 간절히 그 蘇命이 있기를 빌매 정상국도 하는 수 없이 그 뜻을 받아 인중을 용서하였다. 이에 兄弟들은 모두 舍心하여 인중의 병을 구호하였다. 父母와 兄弟들의 따뜻한 情을 알게 된 인중은 그 죄의식으로 인하여 몇번이나 죽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서 寤우침의 나날을 보냈다.

최공과 소처사 兩家의 이야기를 들은 정상국은 총재와 예부를 그곳에 보내어 前日 인중의 과오를 깊이 사과하였다. 이 집에서는 上京하여 소처사의 三忌를 지내고 딸들을 出嫁시키지 못하여 인중을 恨하며 정부의 하회를 궁급히 여기고 있었다. 총재 곧개는 최공(호부상서)께 배알하고 階下에 내려 冠을 벗고 아우의 失行을 請罪하였다.

다음 날 최공이 정부에 와서 인중의 婚事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때 상국이 주저하며 최공은 萬一 이 婚事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두 아이를 深閨에 묶어둘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이 일은 進展되었다. 그 吉期를 언제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인중이 아직 罪中이라 늦추려 하였으나 태부인이 빨리 서둘기를 바라고 있고 인옹의 차례가 있어 무작정 늦추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이럴 무렵에 조금 오가 와서 인옹의 婚事를 서두는지라 인중을 입장하고 곧 인옹을 장가들이기로 決定하였다.

태부인이 상국을 불러 直席에서 擇日토록 하니 一旬餘가 남게 되었다. 총재와 인옹이 극성스럽게 그 모부인과 兄弟의 惡心을 그치려 애쓰다가 이제 이런 날을 당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고 예부 또한 같은 心情이었다.

吉日에 여러 賀客들이 모여들어 인중과 인옹을 보고 새삼스럽게 놀라며 그 늙름함을 탄복하였고 상국도 그 거동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한편 최공은 擇日을 하고서도 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急하게 서두르니 소소저는 자위 喪 三年을 치루자마자 出嫁치 못하리라 하고 고집하였다.

吉日이 되매 인웅은 조부에 가서 홍신을 교배하고 돌아오고 인중은 최부에 갔다 돌아오매 태부인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며칠을 지냈다.

하루는 정상국이 모든 자질을 데리고 유완하다가 옛날 태사가 유완하던 정자를 특별히 인중에게 내주고 勉學케 하니 인중이 모든 과거사를 거두고 오로지 책 읽기에만 沒頭하게 되었다.

봄이 되자 나라에서 設科하니 장생 문승이 壯元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토록 그를 꺼려하다가 그 壯元함을 보고 성염소저의 평생이 매물치 않음을 기뻐하였다.

정상국이 오랫동안 부친 墓所에 가지못함을 恨하다가 말미를 얻어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다녀왔다. 이때 소부의 태부인이 急患이 일어나 정상국은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다. 그러나 주태부인은 다시 回春치 못하고 운명하였다. 그러자 소씨는 그 심정을 이기지 못하여 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주위의 간청으로 그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국이 태운산으로 돌아오려 하자 모두들 소씨의 몸가짐에 걱정을 하였기 때문에 상국은 三子를 모두 그곳에 머물게 하여 그녀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주태부인의 장례를 치른 뒤 소씨는 밤마다 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부에서는 모두들 그녀가 병이 될까봐 걱정을 하였다. 마침내 그녀는 병이 되어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인성과 인웅은 있는 정성을 다하였고 상국 또한 늘 그녀 옆에서 약을 친히 다스리며 정성을 기울였으나 그녀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소씨는 정신이 혼미하여지고 수습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

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그곳의 天神이 되어 있었다. 이에 그녀는 그 어머니를 붙들고 한참동안을 정신없이 호곡하였다. 그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많은 경계의 말을 들었다. 이때 그녀는 죽었으면 좋겠으니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 모친은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정상국의 前妻 양부인도 있었다. 양씨는 역시 그녀에게 여러 가지 정부를 위해 당부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소씨의 죄의 有無를 보는 거울을 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낱알이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얼굴을 붉혔다.

이때 玉皇上帝가 조회를 하였다. 그 자리에는 인성과 인웅이 있었고 그들은 자기의 사죄를 극진히 진정하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지극한 그들의 정성은 마침내 上帝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上帝는 소씨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였다. 거울을 거둔 양씨는 그녀에게 자기의 근심은 정상국에 대한 것이니 그것이 곧 소씨의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면서 빨리 人間世上에 돌아가 夫婦 和樂하기를 당부하였다. 소씨는 모부인과 헤어진 뒤 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두 아들이 정성껏 그녀를 구호하고 있었다.

선시에 인성과 인웅은 모부인의 병이 낫지 않음을 걱정한 끝에 그들이 태운산에 올라가 정성을 드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어머니 대신에 자들에게 죽음을 내려 달라고 축원했다. 이러한 정성이 있었는데도 소씨는 일어나지 않고 죽어 있으니 집안에서는 장례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때 소씨가 눈을 뜬 것이다. 그녀는 인성의 손을 잡고 인웅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지난날의 자신의 죄를 사죄하였다. 이어 그녀는 자부들을 불러 같은 말로 그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다음날 신성하는 자리에서 인성은 소씨가 해과함을 말하였다. 태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국도 무척 기뻐하였다. 그후 소씨는 병이 낫게 되었다. 그녀는 날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옆에 앉히고 사랑이 가득 찬 生活을 하게 되었다. 한편 그녀는 태부인 앞에 나아가 지난날의 자

기 죄과를 사죄하고 故鄕에 돌아가 父親이나 섬기며 살겠다 하자 온 집 안 식구들이 모두 간곡히 간하매 그곳에서 함께 살기로 作定하였다. 그 후 소씨는 인성과 인용 그리고 조, 장 등 소저를 불러 앉히고 지난번 非夢似夢間에 양씨에게서 들은 바 궤 속에 깊이 간직하던 양씨의 글을 꺼내어 읽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그 글을 읽고 돌아가신 양부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성염소저가 장한림의 사랑을 차지하게 되자 여소저는 그것이 마땅치 못하여 한바탕 亂動을 피웠다. 그러자 장한림은 그녀를 本家에 보내어 그 병을 치료함이 좋겠다 하고 그녀를 本家로 보냈다. 장공은 여원홍의 勢力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마침내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여소저는 本家에 돌아가 父母 앞에서 비상홍점을 내보이며 恨스러워 하였으나 그녀는 끝내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世上을 떠나고 말았다. 여원홍은 죽은 딸을 생각하고 그 怨情을 풀어주려고 上表를 하여 장씨의 허물을 탕하였다.

조금오가 上命을 받아 장한림(세린)을 問罪하고 또 여소저의 婢子들을 問招하였으나 장한림의 罪가 들어나지 않았다. 조금오가 調查한 結果를 上奏하였고 정상국이 또한 그 나름대로 이 事件을 조사하였으나 亦是 罪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上은 장한림을 長沙地方으로 내치라 하였다. 장한림이 追放되던 날 여러 친우들이 江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上의 너그러운 赦命이 곧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였다.

이참정(한)이 인용을 보고는 사위 삼기를 願했다. 이상국과 조태사가 中間에 들어 정상국을 찾아가 인용의 再娶를 중용하였다. 그러나 정상국은 끝내 그 請婚을 받아주지 않았다. 落心千萬으로 날을 보내던 이참정은 이모인 추밀사 윤공의 부인을 찾아가 그 사실을 하소연하였다. 그녀는 곧 추밀사를 통하여 實人에게 부탁케 하였더니 實人이 皇上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였다. 皇上은 인용을 몹시 아끼고 사랑하던 터이라 인

웅이 一妻로 그치지 않으리라 하고 賜婚敎旨를 내리리라 約束하였다.

上은 젊은 學士들을 불렀다. 인웅도 그 자리에 同席하였었다. 이때 上은 인웅에게 바둑을 두자고 하였다. 첫판을 인웅이 이겼다. 上은 역을 하게 졌다면 다시 한판을 더 두기로 하였다. 바둑을 두면서 上은 지난날 자신이 마선에게 곤욕을 當하던 일을 말하며 정상국 父子의 忠節을 높이 일컬었다. 그리고는 참지정사 이한의 딸이 뛰어남을 이르며 賜婚하겠다고 했다. 인웅은 극구 사양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上은 곧 使臣을 태운산에 보내어 인웅의 賜婚敎旨를 傳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모두들 난처해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여원홍이 다시 表를 올려 자기의 過去事를 일일이 告白하였다. 그리고 그 罪가 太甚함을 일컫고 죽음을 請하였다. 上이 命招하였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다시 使臣을 보냈더니 그는 上前에 나와 머리를 두드리고 죽기를 請하였다. 上이 간곡히 타이르고 자리를 주매 겨우 그 뜻을 늦추었다. 이에 上은 長沙로 내친 세린을 直時 放送토록 하였다.

인웅의 賜婚敎旨를 받은 정부에서는 그 일이 비록 願하던 바는 아니었으나 이참정의 家統이 좋으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成婚하였는데 규수가 요조함을 보고 모두들 기뻐하였다.

이무렵 장한림의 아내인 성염소저는 男便이 長沙로 追放을 당하자 병이 되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가 조리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장공이 身病으로 눕게 되었다. 그는 죽은 며느리 여소저의 怨魂이 자기에 腸內에 들어와 腸胃를 찌르며 지난날의 원수를 갚겠다고 한다면 신음하였다. 周圍에서는 그리 대단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殞命하고 말았다.

이 消息을 들은 정부에서는 예부(인관)를 그곳에 보내어 그의 生死와 葬禮를 살피도록 했다. 경예부는 그 聘父의 죽음 앞에 나아가 자기가 지난날 半子之道를 다 못했음을 뉘우쳤고 또 그러한 것이 事勢不得했음

을 눈물로 사죄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장공이 아직 명맥이 끊이지 않았음을 發見하고 약을 쓰며 친을 놓아 그의 意識을 回復케 하였다.

한편 장공은 非夢似夢間에 先公을 만나 그에게서 경계의 말을 듣고 나자 鬼卒들이 그를 물에 떨어뜨리라 하고 銀河水에 던지고 말았다. 이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주위에 子姪들이 가득 시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장공은 지난날 자신의 몸가짐에 허물이 많았음을 깨닫고 착한 일로 다음을 돌리기로 決心하였다. 우선 그는 많은 돈을 풀어 며느리 여소저의 冥福을 빌었다.

소부의 소노공이 정부에 와서 소씨에게 거듭 경계를 하매 소씨와 남편인 정상국은 서로 예대하게 되고 아들 子婦와도 和睦하게 되었으나 정상국은 皇帝가 昇遐함을 생각하며 울적한 나날을 보냈다.

新君인 성화皇帝 四年이 되었다. 天下가 太平하매 初春 上元에 皇帝가 성묘에 알성하고 科場을 열었다. 이때 인중이 科場에 나아가 壯元이 되어 한림편수에 任命되었다. 이윽고 그는 최공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新婦의 뛰어난에 모두들 즐거워하였다.

남월이 邊方을 어지럽게 하매 정인웅으로 大元帥를 삼고 정인명을 副元帥로, 先鋒將에 장세린 그리고 참모에 이창계를 各各 任命하여 남월을 征伐케 했다. 이때 소씨가 갑자기 腹痛이 있다가 生子하니 모두들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50대에, 그리고 그 中間에 夫婦의 사이가 나쁘다가 이제 다시 生子를 하게 되니 정상국의 기쁨 또한 말할 수 없었다.

정원수가 所任을 다하고 돌아오니 上은 그 功에 差等을 두지 아니하고 陞品行賞했다. 나라는 太平聖代를 누렸다.

이후 정부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들과 因緣이 있었던 여러 家門들, 장공, 이공, 조공, 소공 등의 子女들은 모두들 立身揚名하고 生子有孫하여 和樂한 歲月을 보냈다.